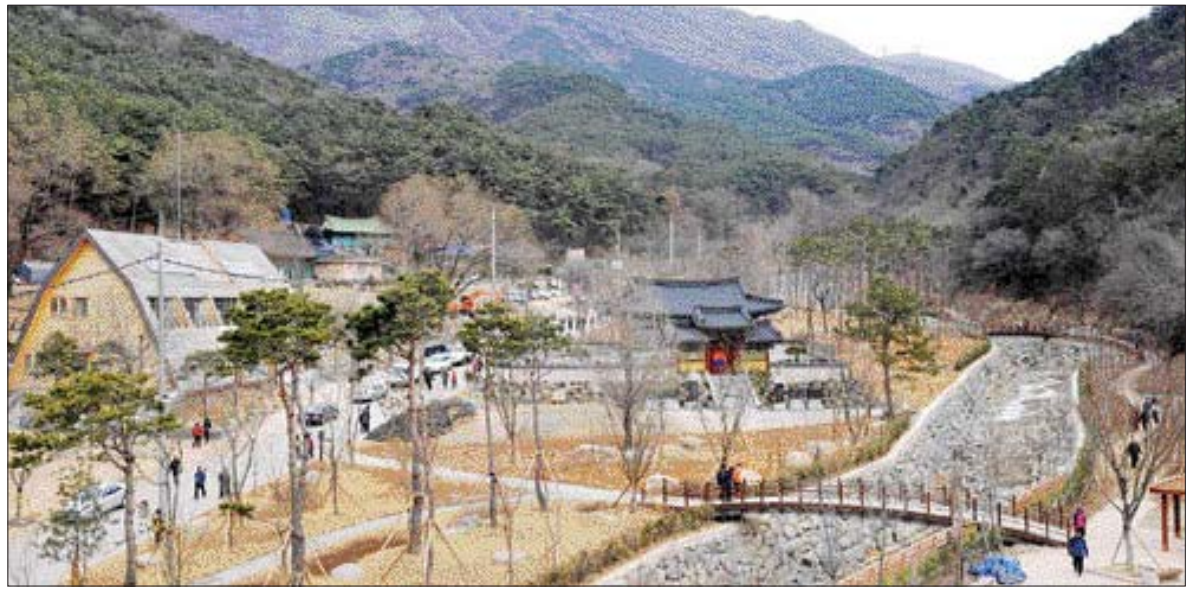


사회



4년에 걸친 증심사지구 자연환경복원사업이 거의 마무리돼 오는 24일 부분개장된다. 최근 상가 철거 뒤 녹지와 건물 이 조화롭게 배치된 증심사지구 일부.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증심사 입구 말끔해졌다

## 무허가 건축물 철거... 나무·꽃 등 심어 새단장

### 4년간 762억 투입... 환경복원 마무리 24일 개장

광주시의 역점사업인 무등산공원 증심사지구 자연환경복원사업이 마무리 돼 24일 부분개장한다. 지난 1972년 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들어선 무허가 건축물들이 철거 이전되고, 그 자리에는 나무와 꽃 등이 심어져 생태복원지로 거듭났다.

7일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762억원이 투입돼 추진된 증심사지구 30.23km에 대한 자연환경복원 3단계 사업이 대부분 완료됐다.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1단계는 지난 2007년 말, 상가단지와 주차장, 버스회차지 조성을 위한 2단계는 지난해 봄 끝났다. 도시공사는 이후 91동의 노후상가 및 주택 철거와 생태복원을 위한 3단계 사업을 추진해왔다.

에게 복원사업 구간을 개방할 예정이다. 도시공사는 올 상반기까지 7개 동을 모두 철거하고 무등산 고유수종인 무허가 건축물들이 철거 이전되고, 그 자리에는 나무와 꽃 등이 심어져 생태복원지로 거듭났다.

이번 복원사업은 40여년 전 무등산의 자연생태를 그대로 되돌린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도시공사는 증심사 주차장에서 상가단지를 연결하는 산책로 및 증심교를 중심으로 계곡을 따라 2km에 걸쳐 늘어선 건축물 대신 무등산에서 자생하는 향토수종으로 자연수림대 군락을 조성했다. 만남의 광장에는 탐방객에게 무등산을 소개하는 안내소를 신축했고, 주변에 목재 파고라와 벤치 등으로 산책로와 쉼터공원을 조성하는 등 등산객의 편의를 크게 높였다.

기존 273개 면의 주차장은 증심사지구 아래쪽으로 옮기면서 448개 면으로 늘리는 동시에 주차면을 잔디 생태 블록으로 시공해 '자연미'를 더했다. 또 증심사천의 주 오염원이었던 상가들을 정비한 뒤 공원 경계에 40개 동의 상가단지를 조성하고, 증심교 상단 주택밀집지역과 증심천 발원지인 덕산골 계곡과 약사사 계곡 등의 식당들도 모두 없애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렸다.

광주도시공사 김영진 사장은 "증심사지구는 연간 700만명의 탐방객이 찾는 광주의 대표적 자연자원"이라며 "이 사업이 완료되면 시민, 외국인들이 언제나 쾌적하게 찾을 수 있는 관광자원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에 초 사업은 지난해 말 모두 마칠 예정이었으나 일부 주민들이 반발, 철거하지 못한 무허가건축물 7개 동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이달 중 시민

기존 273개 면의 주차장은 증심사지구 아래쪽으로 옮기면서 448개 면으로 늘리는 동시에 주차면을 잔디

6일 증심사지구를 찾은 서재구(40·인천시 중구 도원동)씨는 "5년 전에 찾았을 때 오래된 건축물과 사람들로 북적이고, 하천도 더러웠는데 한층 달라진 모습에 놀랐다"며 "무등산을 오르는 길부터 자연 속에 들어왔다는 느낌이였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보건의료학과 전성시대 편입시험 사상최고 경쟁

## 전남대 약학 37대 1·동신대 한의예 25대 1

최근 실시된 광주·전남지역대학의 2010학년도 편입학 시험분석 결과, 취업률이 높은 학과와 자격증 취득 및 전문직 진출이 가능한 학과로의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특히 청년 실업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졸업 후 다시 3학년으로 입학하는 '학사편입'과 전문대 졸업 또는 4년제 2년이상 수학 후 진로를 변경해 3학년으로 재입학하는 '일반편입' 등에 지원한 학생들이 매년 늘고 있다.

편입학 시험에서는 의·약계열 등 다른 직종에 비해 취업이 보장되는 학과, 신입사원 모집 분야가 많은 전공,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이 가능한 학과 등이 인기를 끌었다.

이는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 졸업자들이 어려운 취업 때문에 졸업생보다는 취업에 유리한 재학생 또는 졸업 예정자 신분을 유지함과 동시에 취업문이 넓은 학과를 쫓기 때문이다.

전남대 약학부 학사편입의 경우, 6명 모집에 227명이 대거 몰려 37대 1(지난 해 3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그간 4년제로 운영되던 약학대학이 2011학년도부터 6년제로

학제를 변경함에 따라 올해가 약대 편입의 마지막 기회였던 탓으로 분석된다. 또 동물병원 개원이나 제약회사 근무 등 비교적 진로가 다양한 수의학과도 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동신대 한의예과(학사편입)는 4명 모집에 무려 102명이 지원해 25대 1의 강세를 보였다.

간호학과 계열의 경쟁률도 치열했다. 동신대 간호학과(일반편입)는 24대 1로 최고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조선대 간호학과(일반편입)도 8대 1로 인기를 끌었다.

빛고을 노인건강타운 등 사회복지시설 설립과 정부의 복지 분야 정책 증가 추세도 반영됐다. 광주여대 사회복지학과가 9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으며, 전남대 생활환경복지학과도 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또 유아교육과도 강세여서 전남대와 광주대가 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한편 올해 편입학은 전남대가 오는 12일 합격자발표에 이어 16~17일 합격자 등록을 받는 등 이달 중순에 일정이 마무리된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 전남대 등 온라인 수업

### 12년만에 잠정 중단

한국방송통신대, 전남대, 한양대 등 7개 대학이 참여한 한국가상대학 연합의 온라인 수업이 시작 12년 만에 올해 참여 대학 부족으로 잠정 중단됐다.

7일 참여 대학들에 따르면 각 대학은 학교 홈페이지에 "회원 대학 다수

의 탈퇴로 한국가상캠퍼스(www.kvc.ac.kr)가 해체돼 올해 1학기에는 가상대학 운영을 잠정 중단한다"는 공지를 띄웠다.

가상캠퍼스는 회원 대학별로 특성화한 과목을 온라인상에서 공유하는 것으로 광운대, 경북대, 경성대, 경희대, 대구대, 이화여대, 전남대, 한국방송통신대 등 9개 대학이 참여해 1998년 시작됐으나 대학들의 잇따른 탈퇴로 가상대학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26분 해질 18시 07분 달돋이 03시 08분 달질 12시 51분

**간지러운 빗방울**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

지역	날씨	기온
광주	흐리고 한때 비	5/12°C
목포	흐리고 한때 비	5/11°C
여수	흐리고 한때 비	6/10°C
완도	흐리고 한때 비	4/10°C
구례	흐리고 한때 비	2/12°C
해남	흐리고 한때 비	3/11°C
장흥	흐리고 한때 비	3/11°C
고흥	흐리고 한때 비	4/10°C
순천	흐리고 한때 비	3/12°C
영광	흐리고 한때 비	3/10°C
진도	흐리고 한때 비	4/11°C
전주	흐리고 한때 비	4/11°C
남원	흐리고 한때 비	0/10°C
목성	흐리고 한때 비	6/11°C

〈오전〉 바다: 중랑 파고 0.5~1.0m, 체감온도 13.1, 동파지수 낮음, 뇌졸중지수 낮음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0.5~1.5m, 관심 낮음, 낮음  
 남해 서부 앞바다: 동~남동 0.5~1.5m, 관심 낮음, 낮음

〈오후〉 바다: 중랑 파고 0.5~1.0m, 목포 09:57~02:09, 21:44~15:56  
 남해 서부 앞바다: 남동~남 0.5~1.5m, 여수 05:51~12:09, 17:18~23:39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9(화)	10(수)	11(목)	12(금)	13(토)	14(일)
날씨	☁	☁	☁	☁	☁	☁
최저/최고	7/13	7/12	5/8	1/5	0/6	-1/5

# “겨울철 화재 34% 담배꽂초 때문”

## 광주시소방안전본부

겨울철에 발생한 화재의 34%가 담배꽂초로 인한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7일 광주시소방안전본부(본부장 최정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부주의로 인한 화재 90건 가운데 담배꽂초로 인한 화재가 31건 발생했다. 야외나 도로에서도 15건이 발생해 주말 야외 나들이나 산에 오를 때도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

났다. 담배불은 온도가 섭씨 500도에 가깝고, 피울 때는 800도가 되는 열을 내기 때문에 담배꽂초는 불씨를 완전히 제거하고 재떨이에 버리는 습관이 필요하다.

광주시 소방본부 관계자는 “2월에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이상기후와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말에 산에 오를 때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제주악영투어의 입체배치는**  
**한미산 등반/올레길/관광**

영광·영암·인라산·문태리·호수·계곡·북평수동  
 1월 9일(화)~10일(수) 일주일  
 영암·영광·문태리·호수·계곡·북평수동

제주악영투어의 입체배치는 한미산 등반/올레길/관광

**제주악영투어의 입체배치는**  
**한미산 등반/올레길/관광**

영광·영암·인라산·문태리·호수·계곡·북평수동  
 1월 9일(화)~10일(수) 일주일  
 영암·영광·문태리·호수·계곡·북평수동

제주악영투어의 입체배치는 한미산 등반/올레길/관광

**대한민국 대표 건강신발**  
**헬스킹 기능화**

신발이 아닌 과학을 신다!  
 신발의 본질은 과학, 헬스킹 헬스킹 헬스킹

대한민국 대표 건강신발 헬스킹 기능화